

기도

1.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눔

1.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2. 최근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신앙

나사렛

나사렛은 이방 땅과 가까운 갈릴리 지역의 아주 작은 마을이라는 점에서 유대인들은 나사렛을 이방 땅으로 간주했고, 또 나사렛 사람을 경멸과 조롱의 대상으로 보았다(요 1:46; 7:41, 52; 행 24:5). 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곳 나사렛에 와서 자라셨고 또 활동하심으로 이방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었다(마 4:13-16). 더욱이 예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불려짐으로써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좀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즉,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불린 것은 예수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주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라 본다.



구역 공과

2023년 12월 17일

나사렛 예수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나사렛 예수

마태복음 2장 19-23절 (찬27장, 91장)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셔서 헤롯과 아겔라로부터 예수님과 마리아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사렛으로 이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의미를 깨달아 붙드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19-21절).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1절).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던 중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찾았고(1-2절), 이를 들은 헤롯은 예수님을 죽일 작정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찾으면 자신에게 고해달라 말했습니다(8절).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꿈을 통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12절). 요셉 또한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헤롯이 아기들을 죽일 것이니 애굽으로 피신하라 말했습니다(13-14절). 동방박사에게 속은 것을 알아챈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모든 두 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죽였지만 예수님은 이미 애굽으로 피한 후였습니다(16절). 요셉이 애굽에 있는 동안 헤롯이 죽었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다시 나타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20절). 그래서 요셉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절대 막히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백성을 구원할 예수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헤롯의 때에는 죽음의 땅, 헤롯의 죽음 이후에는 안전한 땅, 생명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서있는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명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영감의 별을 찾고 순종해야 합니다.** 영감의 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우리에게 맞는 영감의 별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감의 별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는 막막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영감의 별이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절대 막히지 않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셨다는 말씀입니다(22-23절).

하나님께서 요셉을 나사렛으로 이끄셨습니다(22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훗날 ‘나사렛 예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많았던 나사렛을 더럽고 천한 곳으로, 나사렛 출신 사람을 비천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는 비천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23절). 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은 이사야 11장의 예언으로써, ‘나사렛 예수’가 절대 비천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임을 가르쳐줍니다.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예언했습니다(사11:1). 여기의 ‘한 가지’는 히브리어 ‘네째르’로써, ‘나사렛’의 어원입니다. 그렇기에 ‘나사렛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분임을 의미합니다. **이새의 ‘한 가지’로 오시는 예수님은 첫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십니다(사11:2).**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둘째,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리십니다(사11:3-4a).** 예수님께서 외모와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믿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한 모든 것을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해 주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셋째, 능력으로 이기십니다(사11:4b).**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죄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악한 세력과 귀신, 병마 앞에 있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도 능력이 임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나사렛 예수’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동방박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한 가지’를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나사렛 예수’가 결코 비천한 자가 아니라 구원을 완성할 자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예언하신 말씀을 통해 ‘나사렛 예수’가 비천하고 보잘것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존귀한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를 때, 그분의 능력과 승리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